

영한 번역에서의 신체언어 번역 전략

진 실 로

(세종대)

1. 서론

언어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의사소통이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든, 명령이나 부탁을 하든, 혹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든 간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받는 것이 언어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언어활동은 대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같은 언어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몸짓이나 기호 등의 비언어적 요소가 활용되기도 한다. 비언어적 요소 중에서도 얼굴표정(facial expression), 시선주기(eye contact), 거리 유지(proximity), 몸짓(gesture) 등 신체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을 신체언어(body language)라고 부른다. 신체언어는 주로 음성언어와 함께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음성언어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음성언어보다 신체언어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심리학자 메라비안(Mehrabian 1981)에 따르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때 메

시지 전달에 작용하는 요소는 어휘, 목소리 톤, 신체언어의 세 가지인데, 메시지 전달 기여도가 각각 7%, 38%, 55%로, 비언어적 요소, 특히 신체언어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표정이 발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는 표정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음성언어나 문자언어가 문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신체언어 역시 문화와 어떤 연관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는 크게 보편론, 상대론, 절충론의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된다(장한업 1999 참고). 보편론은 신체언어가 어느 문화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으로 상이한 문화에서도 얼굴표정은 비슷한 양상을 띤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Darwin 1872). 상대론은 문화마다 신체언어가 달리 발달하며 심지어 얼굴표정까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LaBarre 1947; Birdwhistell 1970). 마지막으로 학계와 대중의 공감을 가장 많이 얻고 있는 절충론은 보편론과 상대론의 주장을 절충한 입장으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려는 필요성은 인류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규칙(display rule)은 문화마다 달라진다고 주장한다(Ekman 1972; Ekman et al. 1987). 즉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 상태와 얼굴표정 간에는 선천적이고 문화 보편적인 필연 관계가 존재하지만, 해당 문화의 규칙에 따라 그 표정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등의 조절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얼굴표정 외의 다른 신체언어는 문화 간의 차이가 한층 크게 느껴진다. 가령 몸짓의 경우, 여러 문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몸짓이 있는가 하면 특정 문화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한 몸짓도 있다. 또한 비슷한 몸짓이 여러 문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되 그 의미는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원 모양을 만들어 보이는 소위 ‘OK’ 표시를 하는 행동은 미국에서는 ‘좋다, 승인한다’의 의미로 통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무(無), 무가치’의 뜻이어서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관심’의 의미를 나타낸다.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강도 높은 외설을, 이라크에서는 동성애를 뜻하는 농도 짙은 성적 모욕의 표시로 사용된다. 문화 간 신체언어의 이런 차이는 뜻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실례로 1950년대 당시 미국의 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이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취재진들의 카메라를 향해 양손으로 OK 사인을

보냈다가 브라질 국민의 심한 반발을 샀다. 또한 현재 이라크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의 OK 사인이 반미 감정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이노미 84).

의사소통에서 신체언어는 음성언어 못지않게, 때로는 음성언어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 또한 신체언어에는 해당 문화에서만 통용되는 특유의 의미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언어 간, 문화 간에 진정한 의사소통의 성공을 이루려면 음성언어뿐만 아니라 신체언어에도 능숙해야 한다(Davis 1971). 외국어 학습에서 문화 지도와 더불어 신체언어의 학습이 점차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성광수 1999; 이점숙 1997; 최광현 1996; Galisson 1990; Galisson 1976). 같은 맥락에서 번역 작업 시 신체언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자명해진다. 번역은 단순히 언어의 변환으로 그치지 않고 문화 간 전달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번역가는 원천문화(Source Culture)와 목표문화(Target Culture) 모두에 대해 그 문화공동체에서 공유하는 태도, 가치, 믿음, 사회적 규범에 익숙해야 하며, 번역 시 이를 표현해주어야 한다. 이런 문화적 발자취를 무시해버리면 원천텍스트에서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목표언어 독자가 누릴 기회가 박탈되며, 심지어는 원천텍스트의 의미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문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신체언어에 초점을 맞춰,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 시 신체언어로 인해 발생하는 번역의 어려움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신체언어의 기능과 분류

신체언어를 비롯한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관련하여 반복 및 잉여성, 대치성, 모순 및 기만성, 보충성, 규칙성, 강조의 기능을 담당한다(김영순·임지룡 8-9). 누가 달리기를 제일 잘 하느냐는 질문에 손가락으로 한 소녀를 가리키며 “영희요.”라고 말한다면 이 때 ‘영희’라는 소녀를 가리키는 동작은 언어적 메시지를 ‘반복’함으로써 ‘잉여성’을 띤다. 말없이 손가락으로 가리켜만 보임으로써 언어적 표현을 ‘대치’할 수도 있다. 선물을 받고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하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모순’된 동작을 취할 수도 있고, 고맙다고 말하면서 환하게 웃어 보임으로써 기쁜 감정을 ‘보충’해서 전달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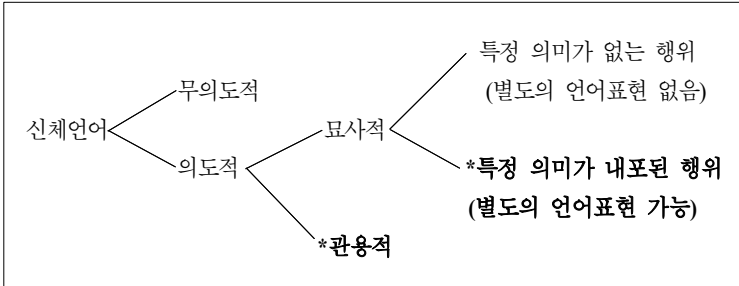
도 있다. 신체언어에는 일종의 ‘규칙성’도 존재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싶을 때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는 동작을 하기 마련이다. 또 꾸지람할 때 검지를 들어 상대방에게 흔드는 식의 동작을 통해 언어적 메시지를 ‘강조’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의사소통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신체언어는 표현 수단, 신체 부위, 기원, 의사소통 행위, 표현 의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김영순·임지룡 8 참조). 간략히 소개하자면 신체의 동작, 외양, 접촉 행위, 유사언어(paralanguage), 공간 및 시간 사용, 물체와 환경 등의 ‘표현 수단’을 통해 분류하거나, 해당 ‘신체 부위’가 부분인지 전신인지, 혹은 부분들이 결합한 것인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또한 언어·문화권역과 관련하여 해당 신체언어의 ‘기원’에 따라 고유 신체언어, 외래 신체언어, 혹은 차용 및 변용 신체언어로 분류하거나, 해당 신체언어의 ‘의사소통 행위’에 따라 정보 제공 동작, 요구 및 청유 동작, 감정 표현 동작, 평가 동작, 지시 동작으로 분류하기도 한다(김영순 2000). ‘표현 의도’가 의도적인지 혹은 무의도적인지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는데(이석주 2000), 무의도적 신체언어는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지는 등 화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벌어지는 동작이며, 의도적 신체언어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동작으로 후천적 학습을 통해 그 사회에서 약속된 동작을 익혀 사용하는 것이다. 이석주는 전자를 본능적 “현상”으로 보고, 후자를 진정된 의미의 “신체언어”라고 본다. 후자의 경우 사회마다 약속된 신체언어의 종류와 의미가 다르므로 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신체언어가 다른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가령 자신을 가리키는 동작도 손 전체를 사용할지, 손가락만 사용할지, 또 가슴을 가리킬지, 코를 가리킬지 그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손을 흔드는 동일 동작이 어느 사회에서는 ‘오라’는 뜻을, 다른 사회에서는 ‘가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현용(2003)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비언어적 행위 표현을 선정하면서, 그 선정 기준으로 의도성, 타문화와의 차이, 관용성, 비언어적 행위에 해당하는 별도의 한국어 표현 존재 여부를 꼽는다. 가령 ‘손을 비비다’라는 비언어적 행위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행위이면서 동시에 그 속뜻을 ‘용서를 구하다’ 등의 언어적 표현으로 옮길 수 있다. 반면에 ‘눈을 감아주다’라는 비언어적 행위는 눈을 감는 실제 행위는 동반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모르는

척하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이상 소개한 논의 중 번역과 더욱 밀접해 보이는 이석주와 조현용의 분류를 접목하면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신체언어를 다음과 같이 재분류할 수 있다.

<그림1> 신체언어의 분류



신체언어는 일차적으로 행위자의 의도성 여부에 따라 무의도적 신체언어와 의도적 신체언어로 분류된다. 무의도적 신체언어는 이석주가 지적했듯이 본능적 현상이므로 인류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추워서) 몸이 덜덜 떨렸다’라는 신체언어는 어느 언어로 옮겨도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의도적 신체언어는 실제행위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시 관용적 표현과 묘사적 표현으로 나뉜다. 가령 ‘두손 두발 다 들다’라는 표현은 실제 그런 행위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항복하다, 포기하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관용적 신체언어이다. 반면에 ‘그는 책을 책상에 올려놓았다’ 혹은 ‘그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표현은 “그”가 실제로 “책을 책상에 올려놓”고,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을 행했음을 묘사하는 묘사적 신체언어이다. 다만 전자의 동작은 행위 자체에 특정 의미가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언어적 표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데 반해, 후자의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은 행위 자체에 특정 의미가 포함되어 별도의 언어적 표현, 즉 ‘수긍했다’ 등의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특정 의미가 내포된 신체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에 따른 것이므로 문화와 언어마다 발달 양상이 다르고, 따라서 번역가의 주의를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낯선 몸짓은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친숙한 몸짓은 잘못된 해독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런 면에서 번역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신체언어는 바로 행위에 특정 의미가 포함된 묘사적 신체언어라고 할 수 있다. 또 관용적 신체언어는 실제 행위를 동반하지는 않지만 문화와 언어에 따라 발달 양상이 크게 다르고 그 관용적 성격으로 인해 글자 그대로 번역해서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번역가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첫째, 행위에 특정 의미가 포함되어 별도의 언어 표현이 가능한 묘사적 신체언어와, 둘째, 관용적 신체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번역시 주의할 점과 유용한 전략을 탐색하기로 한다.

3. 특정 의미가 포함된 묘사적 신체언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다루는 번역 작업에서 신체언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크게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원천언어에 존재하는 신체언어가 목표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둘째, 유사한 형태의 신체언어가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양쪽에 모두 존재하지만 그 의미는 다른 경우, 셋째,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에 형태와 의미가 유사한 신체언어가 존재하지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특정 의미가 내포된 묘사적 신체언어에 대해 위의 세 가지 경우의 예를 영한번역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그 해결책을 탐색하기로 한다.

3.1 원천언어에만 존재하는 신체언어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원천언어, 즉 영어에는 존재하되 목표언어인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체언어의 대표적 예로 손가락을 교차해 보이는 몸짓이 있다. 중지를 검지 위에 올려 꼬는 이 동작(*crossed fingers*)은 영어권 국가에서 ‘행운을 빈다’는 의미로 통용되며, 영국 국영복권과 미국 일부 주 복권의 로고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신체언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가락을 교차했다는 동작의 묘사만으로는 한국어 독자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한다. 실제 예문을 통해 확인해보자. 가난하지만 딸에게 바이올린을 사주고 싶은 아버지가 바이올린 연주가인 친구에게 비싸지 않은 바이올린을 구해

달라는 편지를 부친 후, 부디 좋은 바이올린을 구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손가락을 교차하는 장면이다.

(1) ST: He mailed the letter and kept his fingers crossed.

(‘A Seven-Dollar Dream’ 245)

TT1: 아빠는 편지를 부치고 나서 손가락을 교차했다. (필자 번역)

‘손가락 교차’가 행운을 비는 몸짓임을 아는 영어권 독자들과 달리 이런 몸짓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어 독자들은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해당 몸짓과 더불어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는 다음과 같은 번역 방법이 효과적이다.

(2) TT2: 아빠는 편지를 부치고 나서 손가락을 교차하며 행운을 빌었다.

(필자 번역)

손가락을 교차하여 행운을 비는 동작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이제 실제 몸짓을 동반하지 않고 음성언어로만 발화되어도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예컨대 큰 시험을 앞둔 사람이 친구에게 “Keep your fingers crossed for me.”라고 말하면 자신을 위해 행운을 빌어달라는 의미다. 이 표현은 일상대화 뿐 아니라 문어텍스트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다음은 CNN Money 인터넷판 기사의 헤드라인 부분이다.

(3) ST: Stores keep their fingers crossed (CNN Money 기사 2008. 11. 28)¹⁾

TT: 매출 대박을 기원하는 상점들 (필자 번역)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검은 금요일에 새벽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과연 이런 열기가 연휴 내내 계속될지는 모르겠다는 기사의 헤드라인에 “keep their fingers crossed”란 표현이 쓰였다. 실제 몸짓에서 시작된 표현이 문어텍스트에서도 ‘행운을 빌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 http://money.cnn.com/2008/11/28/news/economy/blackfriday_2008/?postversion=2008112809

실제로 상점(주인)들이 손가락을 교차하는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운이 좋아 매출이 많이 오르기를 기원했다는 뜻이므로 번역 시에도 손가락을 교차하는 동작을 묘사하는 식의 번역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보다는 해당 동작이 의미하는 ‘행운 기원’이란 뜻으로 옮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가락을 교차하는 동작은 행운을 비는 동작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거짓말할 때 양심의 가책을 달래기 위한 동작으로도 사용된다. 대개 행운을 비는 동작은 남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지만 거짓말할 때는 손을 등 뒤에 숨겨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보통이다. 영어 텍스트에서 손가락을 꼬는 장면이 나오면 번역자는 우선 그것이 행운을 빌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임을 암시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4) ST: she lied, crossing her fingers in her skirt.

(*Beyond Seduction* 51)

TT1: 그녀는 스커트 속에서 손가락을 포개 행운을 빌며 거짓말을 했다.

(『유혹을 넘어서』 84)

TT2: 그녀는 양심에 찢려 스커트 속에서 손가락을 포개며 거짓말했다.

(필자 번역)

위 예문에서 여자는 ‘부모님께 돌아갈 수는 없느냐’는 상대방의 질문에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면서 몰래 손가락을 교차한다. 번역문 [TT1]에서 번역자는 이 몸짓을 행운을 비는 동작으로 이해하여 ‘손가락을 포개’는 동작에 ‘행운을 빌며’라는 설명을 더해 번역했다. 한국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작의 의미를 추가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she lied’라는 구절로 볼 때 위 손동작은 행운 기원보다는 거짓말하는 게 찢려서 하는 동작임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TT2]처럼 ‘양심에 찢려’라는 설명을 추가하여 해당 몸짓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영어권에서 행운을 빌기 위해 하는 몸짓 중에 나무를 두드리는 동작도 있다. 자랑을 하거나 소망을 이야기 해놓고 그런 일이 계속되거나 정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주변의 목재를 두드리는 일종의 미신에서 비롯된 관습이다. 이 때 나무를 두드리는 동작만 하거나 혹은 “knock (the) wood”, “knock on wood”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한다.

(5) ST: “. . . And so far we’ve managed to keep the electricity and phones working.” She rapped her knuckles on the desk. “Knock wood.” (*Angel: Avatar* 17)

TT1: “. . . 그리고 여태 전기와 전화도 잘 작동하고요.” 그녀는 손가락 관절로 책상을 두드렸다. “나무를 두드려요.” (필자 번역)

TT2: “. . . 그리고 여태 전기와 전화도 잘 작동하고요.” 그녀는 손가락 관절로 책상을 두드려 행운을 빌며 말했다. “앞으로도 그래야죠.” (필자 번역)

위 예문에서 여자는 전기와 전화도 잘 작동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잘 작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무 책상을 손으로 두드린다. 한국에서는 행운을 빌기 위해 이런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직역 시 해당 몸짓은 한국어 독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게다가 뒤에 이어지는 말 “knock wood”를 “나무를 두드려요”라고 직역하면 이런 관습을 모르는 한국어 독자에게 정말 뜬금없게 들려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TT2]처럼 나무 책상을 두드리는 동작의 묘사에 “행운을 빌며”라는 속뜻을 추가하고, “knock wood”란 대사도 “앞으로도 그래야죠”, “앞으로도 그러기를” 식으로 의미 중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knock wood’란 표현은 앞서 ‘crossed fingers’에서 본 것처럼 실제 동작 없이 말로만 표현되어도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

(6) ST: “We’re short-staffed, but several of us were lucky, knock on wood.” (*Soul Harvest* 200)

TT: “여기도 직원을 많이 잃긴 했지만,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그래야 할 텐데.....” (『영혼추수』182)

지진으로 동료 직원들을 많이 잃은 병원 여직원이 ‘우리는 운이 좋았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운이 좋아 끝까지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knock on wood”라고 말한다. 원문텍스트에는 여자의 동작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제 나무를 두드리는 동작도 했는지 아니면 말만 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말만으로도 운을 비는 의도는 충분히 전달되므로 번역자 역시 이 말을 ‘나무를 두드려라’라고 직역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텐데”라고 옮김으로써 해당 동작의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였다.

3.2.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나 용법이 다른 신체언어

원천문화와 목표문화에 비슷한 형태의 몸짓이 존재하지만 그 의미나 용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번역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원천 텍스트에서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왜곡되기 때문이다. 어깨를 으쓱하는 동작과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의 예를 통해 영어와 한국어 간의 번역 문제를 살펴보자.

어깨를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에 대해 영어는 ‘shrug (one’s shoulder)’로 표현하고 한국어는 ‘어깨를 으쓱하다’로 표현한다. 동작 자체는 동일한 형태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 먼저 한국어의 예를 살펴보자.

- (7) a. 최근 몇 년 간 비슷한 경험을 했던 선수들의 어깨가 축 처졌다. . .
 . 강민호는 홈경기에서 0.342, 원정경기에서 0.316을 기록하고 있다. ‘롯데의 강민호’가 자랑스럽게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MLPARL 기사 2008. 5. 27)²⁾
- b. . . . 나와 보니 불 밝은 거리에로 멀리서 흘러오는 처량한 듯한 그 음악 소리는 언젠가 한때 귀에 배었던 말광대 노는 소리가 틀리지 않았다. 안 영감은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하였다. (『아담의 후예』 41)

(7a)에서 어깨를 으쓱이는 동작은 자랑스러움을 표현하는 몸짓이고, (7b)에서는 음악 소리에 춤이라도 출 듯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을 표현하는 몸짓이다. 한국어의 ‘어깨를 으쓱하다’라는 표현이 자랑스러움, 흥겨움을 나타내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표현인 영어의 ‘shrug (one’s shoulder)’는 그 의미와 용법이 매우 다르다. 다음 예문을 통해 확인해보자.

- (8) a. ST: “Holmes,” Kurtz shrugged, indifferent. (*The Dante Club* 266-7)
 TT: “홈스라……, . . .” 커츠가 별 관심 없다는 듯이 어깨를 한 차례 으쓱했다. (『단테클럽』 140)

2) http://mlbpark.donga.com/bbs/view.php?bbs=mpark_bbs_kbo&idx=10626

b. ST: Lieutenant Anderson shrugged wearily. ‘I don’t know,’ he said. ‘I don’t know.’ (*Eye-Witness* 5)³⁾

TT: 앤더슨 중위는 지친 듯이 어깨를 으쓷었다. “나도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필자 번역)

예문 (8a), (8b)의 밑줄 친 부분에서 작중 인물이 어깨를 으쓷이는 동작의 의미는 뒤에 이어지는 단어나 대사를 통해 분명해진다. (8a)에서는 ‘indifferent’라는 단어를 통해 커츠가 홈스에 대해 관심이 없음을, (8b)에서는 이어지는 대사 “I don’t know.”를 통해 동료의 갑작스런 변화의 이유에 대해 앤더슨 중위가 모르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본문에 별도의 단어나 대사를 통해 어깨를 으쓷이는 몸짓의 의미가 분명해질 때는 번역 시 문제가 없으나 다음과 같이 몸짓만 제시되는 경우에는 번역자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9) ST: “Did you know,” the Captain said, “that I come from three generations of military?”

Eddie shrugged. (*The Five People You Meet In Heaven* 85)

TT: 대위가 말했다. “내가 3대에 걸친 군인 집안 출신이라는 걸 알았나?”

에디는 몰랐다는 듯 어깨를 으쓷었다. (『에디의 천국』109)

위 예문 (9)에서 번역자는 원문에는 없는 “몰랐다는 듯”을 첨가하여 어깨를 으쓷인 동작의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설명 없이 몸짓만 번역하면 해당 몸짓의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식으로 왜곡될지 모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깨를 으쓷이는 동작이 나올 때마다 매번 풀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의미 전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 예문 (9)에서처럼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것이다.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간에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나 용법이 다른 신체언어의 또 다른 예로 ‘고개를 한 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들 수 있다. 이 동작은 아마도 인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몸짓일 것이다. 영어권 사회와 한국 사회에

3) <http://www.scribd.com/doc/3224411/McBain-Ed-aka-Evan-Hunter-SS-Eye-Witness-v1-0>

서도 통용되는 이 동작은 영어로는 대개 ‘cock one’s head’로, 한국어로는 흔히 ‘고개를 갸우뚱하다’로 표현된다. 고개를 기울이는 동작 자체는 매우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번역의 문제는 영어 표현과 한국어 표현 간에 용법과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영어의 ‘cock one’s head’란 표현은 해당 몸짓을 ‘묘사’하는 기능이 강하고 그 몸짓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어느 정도 열려있다. 반면에 한국어의 ‘고개를 갸우뚱하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묘사”하는 동시에 ‘의아하다, 잘 모르겠다, 미심쩍다’라는 행위자의 “심리를 드러내는” 기능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예문을 통해 한국어의 ‘고개를 갸우뚱하다’의 쓰임새를 확인해보자.

(10)a. “코마네치라는 체조선수를 아는가?”

열하는 하얀 차잔에 담긴 원두커피의 향기를 음미하다가 윤민한 기사를 바라보았다. 코마네치? 열하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기억을 더듬었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틀림없었다.

“하, 잘 모르나보군. 하긴 무리가 아니지.....”(『달란트 이야기』 17)

- b. ‘고도의 기술과 집중력을 요하는 반도체 업무를 장애인이 맡아 잘 해낼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 할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일반적인 못지않은 업무 성과를 내고 있다. (머니투데이 기사 2010. 1. 13)⁴⁾

(10a)에서 작중 인물 열하는 코마네치라는 체조선수를 아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해보지만 모르는 이름이다. 이 때 ‘고개를 갸우뚱’하는 동작은 열하는가 열심히 기억을 더듬으면서 취하는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동작을 본 상대방은 열하는가 그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린다. 한국어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다’는 표현은 일차적으로 해당 동작을 묘사하는 기능을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그런 동작이 뭔가 미심쩍거나 잘 모를 때 자주 사용되다보니 ‘고개를 갸우뚱하다’는 표현 자체가 곧 ‘미심쩍다, 잘 모르겠다, 의아하다’는 특정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10b)의 예문에서는 해당 몸짓이 사람들의 실제 동작 묘사보다는 심리 상태의 묘사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 때 ‘고개를 갸우뚱’하다는 표현은 실제로 누군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동

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11211073241990&outlink=1>

작을 한다기보다는 과연 장애인인 반도체 업무를 잘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미심쩍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따라서 밑줄 친 “고개를 가우똥 할 수 있지만” 대신 “미심쩍을 수도 있지만”이란 별도의 언어표현으로 대체해도 의미 전달에 별 차이가 없다.

한국어의 ‘고개를 가우똥하다’가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기능이 강하고 그 의미가 고정된 반면, 영어의 ‘cock one’s head’는 단순히 그 동작을 묘사하는 기능이 강하고 의미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표현을 서로 대응시켜 번역하면 텍스트의 왜곡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 출간된 소설 텍스트에서 예를 들어보자. 대학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난 로즈와 케이트는 모녀처럼 가까운 사이였으나 제자 케이트가 연극 연출을 위해 스승 로즈의 곁을 떠나면서 사이가 소원해진다. 로즈가 피살된 후 케이트는 로즈와 친하던 ‘어테나이드’라는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눈다. 로즈가 제자 케이트를 대학에서 내몬 이유가 케이트 본인을 위한 것이었을 거라고 어테나이드가 말하자, 케이트는 “내가 연극계로 가기를 로즈가 바랐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진로 상담을 해줄 수도 있었겠네요.”라고 비꼬고, 그 말에 어테나이드는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11)ST: Athenaide cocked her head. “Would you have listened?”

I opened my mouth and then closed it again. I would just have assumed she was sabotaging my career. (*Interred With Their Bones* 337)

TT1: 어테나이드는 고개를 가우똥했다.

“했으면 들었겠나?” (“Would you have listened?”)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그랬더라도 나는 로즈가 단지 내 진로를 망치려고 한다고 생각했을 터였다. (『퍼스트 폴리오 2』 199)

피살된 스승 로즈와 제자 케이트의 심한 갈등을 잘 알고 있던 어테나이드는 케이트의 반응에 대해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Would you have listened?”라고 묻는다. 순수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과연 그랬겠느냐, 꺾이나 그랬겠다’라는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동

작도 ‘어이없음, 황당함’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동작을 ‘고개를 가우똥하다’로 번역하니 ‘잘 모르겠다, 미심쩍다’는 인상을 풍겨 원천텍스트의 냉소적, 부정적 뉘앙스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해당 동작의 묘사는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고개를 가우똥하다”라는 한국어 표현에 내포된 또 다른 의미가 덧씌워지는 위험을 피하려면,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다’처럼 단순 묘사만 하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또한 위 예문처럼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통해 행위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까지 전달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위 예문에서 등장인물 에테나이드는 고갯짓을 통해 부정적인 심정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번역도 가능하다.

- (12)TT2: 에테나이드는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였다.
 “했으면 들었겠나?” (필자 번역)

위 번역문 (12)는 해당 몸짓을 ‘고개를 삐딱하게 기울였다’라고 번역함으로써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그대로 묘사하면서도 “가우똥하다”는 한국어 표현이 일으킬 수 있는 의미 왜곡을 피했다. 또한 ‘삐딱하게’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통해 상대방의 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까지 반영하고 있다.

3.3 형태와 의미가 비슷한 신체언어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간에 형태와 의미가 둘 다 비슷한 신체언어가 존재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번역자의 고민이 덜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다음 두 가지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언어마다 연어(collocation) 유형이 다르다는 점과, 둘째, 상대방의 질문에 고갯짓으로 대답할 때 질문의 유형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3.3.1 연어 유형의 차이

동일한 형태와 의미를 가진 신체언어라 해도 그 몸짓을 묘사하는 언어 표현은 언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단어가 문장 내에서 다른 특정 단어들과 습관적으로 결합하는 패턴을 연어라고 하는데(Robins 1980:53), 단어들의 이러

한 결합 유형은 개별 단어들의 정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란 단어는 ‘등산’보다는 ‘수표, 계좌, 출금’ 등의 단어와 어울릴 가능성이 높고, ‘도서관’이란 단어는 ‘봉어’보다는 ‘책, 대출, 학생’ 등의 단어와 더 자주 어울릴 것이다. 하지만 개별 단어의 정의와 무관하게 습관적으로 더 선호되는 언어 유형도 많다. 가령 ‘하다’와 ‘행하다’의 의미는 매우 비슷하지만 ‘방문을 하다’는 자연스럽고 ‘방문을 행하다’는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언어는 언어마다 그 유형이 달라 외국어 학습자나 번역자에게 어려움을 안겨준다. 특히 번역 시 원천언어의 언어 유형에 과도한 영향을 받아 의미는 통하지만 부자연스러운 목표언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체언어 표현 역시 해당 동작에 대해 선호하는 언어 표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번역시 유의해야 한다.

(13) ST: but nearly everybody else clapped their hands to their mouths in horror. (*Harry Potter And The Prisoner Of Azkaban* 130)

TT: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거의 모두 겹에 질러서 입에다 손을 갖다 댔다.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142)

깜짝 놀라거나 겹에 질렸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는 동작은 영어 문화권과 한국어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통용된다. 하지만 해당 동작을 묘사하는 언어 표현은 서로 약간 달라 영어에서는 대개 ‘clap one’s hands to one’s mouth’(손을 재빨리 입으로 가져가다)로 표현하고 한국어에서는 대개 ‘손으로 입을 막다’로 표현한다. 언어는 다른 단어들에 비해 더 자주 어울리는 단어들의 조합이므로 정확/부정확의 기준보다는 전형적/비전형적, 혹은 자연스러움/부자연스러움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입에다 손을 갖다 댔다’는 위 번역이 반드시 ‘틀렸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일반적인 한국어 표현 ‘손으로 입을 막았다’보다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상이면 한국어 독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이용하여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거의 모두 겹에 질려 손으로 입을 막았다”라고 번역하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 (14) ST: They had cried to him from the car, waving their hands.
 “Goodbye, Stephen, goodbye!”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48)

TT: 차 속에서 그들은 손을 저으면서 그에게 소리쳤다.

“잘 있거라, 스티븐, 잘 있어!” (『젊은 예술가의 초상』16)

영어의 ‘wave one’s hands’는 손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으로 인사할 때 사용하는 몸짓이다. 한국에서도 인사할 때 동일한 동작이 사용되며 대개 ‘손을 흔들다’라는 연어 표현을 사용한다. 위 예문 (14)의 번역자는 ‘손을 짓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사실 한국어에서 ‘손을 짓다’라는 연어는, 비록 동작 자체는 인사할 때 하는 손짓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사보다는 뭔가를 거부하거나 부정하기 위한 손사래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위 예문에서 손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은 거부나 부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헤어지면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한 동작이므로 ‘손을 짓다’보다는 ‘손을 흔들다’라는 연어표현이 더 적합하다. 영어와 한국어에 형태와 의미가 동일한 신체언어가 공통으로 존재하더라도 해당 의미에 적합한 연어 유형을 선택해야 가장 자연스럽게, 또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도출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3.2 질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고갯짓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긍정(Yes)을, 고개를 좌우로 짓는 행동은 부정(No)을 의미한다. 불가리아, 그리스, 터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반대로 고개를 끄덕이면 부정을, 고개를 저으면 긍정을 의미하지만, 이런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고개를 끄덕여 긍정의 의미를 표시한다. 영어와 한국어에서도 일반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 긍정을, 고개를 짓는 행동이 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고갯짓이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되면 질문 유형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고갯짓 대신 “yes/no”와 “예/아니요”의 음성언어로 대답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질문 유형은 크게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으로 나뉘는데, 긍정의문문으로 질문할 때는 영어와 한국어의 대답 양상과 그 의

미가 거의 동일하다. 즉 영어에서 “Are you full?”이라는 질문에 “Yes.” 혹은 “No.”로 대답하는 것은 한국어에서 “배불러요?”라는 질문에 “예.” 혹은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여 전자의 대답 “Yes.”와 “예.”는 ‘배부르다’는 긍정의 내용을, 후자의 대답 “No.”와 “아니요.”는 ‘배부르지 않다’는 부정의 내용을 전달한다. 그러나 부정의문문으로 질문할 때는 영어와 한국어의 대답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15) [영어] Q: “Aren’t you full?”

A1: “Yes.” (의미: 배부르다)

A2: “No.” (의미: 배부르지 않다)

[한국어] Q: “배 안 불러요?”

A1: “예.” (의미: 배부르지 않다)

A2: “아니요.” (의미: 배부르다 / 배부르지 않다)

위 예문을 보면 영어에서는 부정의문문으로 묻더라도 대답 자체가 긍정 형태면 “Yes.”로, 부정 형태면 “No.”로 대답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부정의문문으로 질문하면 “예.”라는 대답이 ‘배부르지 않다’라는 부정의 내용을 전달한다. 심지어 부정의문문에 대한 “아니요.”라는 대답은 ‘배부르다’는 긍정의 내용과 ‘배부르지 않다’는 부정의 내용 둘 다를 의미할 수 있어 중의적이다. 번역의 관점에서 보면 영어와 한국어 간에 긍정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문제가 없으나 부정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잘못된 의미로 읽힐 위험이 있어 번역가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 젓는 고갯짓, 즉 신체언어를 통해 대답할 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긍정의문문에 대한 고갯짓은 영어와 한국어 상황 모두에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지만 부정의문문에 대한 고갯짓은 모호하거나 혹은 정반대의 의미를 전달할 위험이 크므로 번역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부정의문문에 고갯짓으로 답하는 경우는 다시 첫째, 고갯짓에 음성언어가 동반되는 경우와, 둘째, 음성언어 없이 고갯짓만으로 답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고개를 젓는 동작이 음성언어를 동반하는 예를 살펴보자.

- (16) ST: “What’s Peter up to now?”
 “You haven’t heard?”
 Buck shook his head. “Too busy getting ready to go.” (*Apollyon* 294)
 TT: “피터는 지금 어찌고 있나요?”
 “못 들었나?”
 벅이 고개를 저었다.
 “집에 갈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폴리온』 258)

피터 소식을 못 들었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는 동작은 ‘들었다’와 ‘못 들었다’의 두 가지 모두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집에 갈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라는 대사를 통해 너무 바빠서 소식을 못 들었다는 의미가 분명해진다. 따라서 비록 부정의문문에 대한 대답이지만 고개를 끄는 동작의 의미가 맥락상 분명하므로 번역자의 개입이 불필요하다. 이번에는 음성언어 없이 고갯짓만으로 대답하는 예를 살펴보자.

- (17) ST: “No white showing?”
 Buck shook his head. (*Assassins* 27)
 TT: “흰자위가 전혀 안 보여요?”
 벅이 고개를 저었다. (『암살단』 28)
- (18) ST: “Ken didn’t know you were a believer, did he?”
 Miklos shook his head (*Apollyon* 243)
 TT1: “당신이 성도인지 켄은 몰랐다고요?”
 미클로스가 고개를 저었다. (『아폴리온』 216)

(17)에서 눈동자의 흰자위가 전혀 안 보이느냐는 질문에 벅은 고개를 끄는 동작을 취한다. 영어 상황에서는 고개를 끄는 행동이 항상 부정(no)을 의미하므로 벅의 고갯짓은 ‘보이지 않는다’의 뜻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안 보이느냐?”는 부정의문문에 대해 고개를 끄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보인다’의 의미도 전달할 수 있어 위 번역문만 보면 과연 벅이 어떤 의도로 고개를 저었는지가 불분명하다. (18)에서도 유사하게 미클로스의 고갯짓이 ‘알고 있었다’와

‘몰랐다’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텍스트의 의미가 모호해진다. 앞선 예 (16)에서처럼 고갯짓 뒤에 음성언어가 동반되면 의미가 분명해지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17), (18)에서처럼 음성언어 없이 동작만으로 답하는 경우에는 텍스트의 의미가 모호해지고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위험까지 있으므로 번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부정의문문에 대해 음성언어 없이 고개를 젓는 동작만으로 대답하는 경우, 번역가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 즉 (1) 설명 추가하기 (2) 몸짓 바꾸기 (3) 질문 바꾸기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고갯짓과 함께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이 전략을 사용하여 위 예문 (18)을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19) TT2: “당신이 성도인지 켄은 몰랐다고요?”
 몰랐다는 듯 미클로스는 고개를 저었다. (설명 추가하기)

원천텍스트의 질문 유형과 몸짓을 그대로 번역하되 고갯짓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몰랐다는 듯”의 설명을 추가 삽입하였다. 비교적 텍스트의 훼손이 적으면서 의미가 명백해진다는 장점 때문에 그만큼 위험부담이 적고 따라서 활용도가 넓은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은 설명을 추가하지 않고도 고갯짓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작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다.

- (20) TT3: “당신이 성도인지 켄은 몰랐다고요?”
 미클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짓 바꾸기)

부정의문문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은 한국어에서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되며, 위 예문의 경우에 “네, 몰랐어요”의 의미로만 해석된다. 따라서 고개를 젓는 중의적인 동작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으로 바꾸면 추가 설명의 삽입 없이도 원천텍스트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몸짓 자체를 바꾼다는 점에서 설명을 추가하는 첫 번째 전략보다 원천텍스트의 훼손 정도가 크다. 또한 맥락상 고개를 젓는 동작 자체가 중요한 텍스트나 해당 동작

과 관련된 말장난(pun)이 포함된 텍스트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 전략은 질문 유형 자체를 부정의문문에서 긍정의문문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원문의 동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 설명 없이 의미를 명료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21) TT4: “당신이 성도인지 켜은 알았나요?”

미클로스는 고개를 저었다. (질문 바꾸기)

질문 유형을 긍정의문문 형태로 바꾸자 고개를 짓는 동작의 의미가 분명해졌다. 만약 맥락상 고개를 짓는 동작 자체가 중요하여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 생각해볼만한 방법이다. 그러나 원문의 훼손 정도가 가장 심하고, 원문에서 의도하지 않은 함축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 대해 얘기하면서 “너 갈 거야?”라고 묻는 것과 “너 안 갈 거야?”라고 묻는 것은 그 함축하는 바가 약간 다르다. “너 갈 거야?”라는 질문은 상대방이 갈지 안 갈지 전혀 모르겠다는 의미를 함축할 수도 있고, 혹은 안 갈만한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가겠다는 의미를 함축할 수도 있다. 반면에 “너 안 갈 거야?”라는 질문은 상대방이 가지 않을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나 혹은 안 가고 싶어 하는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더 자주 사용될 만한 표현으로 전자보다 상대방이 안 갈 가능성이 더 큰 느낌을 준다. 이처럼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에 담긴 함축이 다르기 때문에 원천텍스트의 질문 유형을 바꾸는 방법은 다소 위험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상번역에서처럼 추가 설명을 삽입할 수도 없고 몸짓 자체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움과 의미의 명확함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부정의문문에 대해 음성언어를 동반하지 않고 고개를 짓는 동작만으로 답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위 세 가지 번역 전략 중, 원문의 훼손이 가장 적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은 아무래도 ‘설명을 추가’하는 전략이며, ‘몸짓 바꾸기’나 ‘질문 바꾸기’ 같은 전략은 맥락상 해당 몸짓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번역자는 원문의 훼손 정도, 간결함 유지, 몸짓 형태의 중요성, 질문 유형의 함축 내용 등의 경중에 따라 가장 적절

한 전략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관용적 신체언어

관용적 신체언어는 실제 동작을 묘사하기보다는 해당 표현에 내포된 비유적 의미를 전달하는 일종의 관용구이다. 관용구(idiom)는 “글자 그대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의미상 한 단위로 작용하는 최소 두 개 이상의 단어들”(Beekman and Callow 121)의 조합으로 그 조합의 뜻은 각 단어들의 의미 합과 다르다. 또한 언어마다 관용구의 형태와 의미가 크게 다르므로 관용구를 글자 그대로 직역하는 것은 목표언어 독자들에게 아무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번역자는 먼저 관용구의 의미를 확인한 뒤, 관용구의 ‘형태’가 아니라 ‘의미’에 집중하여 이를 전달할 자연스러운 대응 표현을 목표언어에서 찾아야 한다. 관용적 신체언어 역시 일종의 관용구라는 점에서 번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번역자는 먼저 관용적 신체언어의 속뜻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 등가 표현을 목표언어에서 찾게 된다.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와 한국어에도 축어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를 모두 가진 관용구가 많다. 영어표현 “twist one’s arm”은 실제로 누군가의 ‘팔을 비트는 동작’을 가리키는 축어적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다’라는 비유적 의미로도 사용된다. 한국어표현 “펼쩍 뛰다”는 실제로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리며 뛰는 동작’을 가리키는 축어적 의미 뿐 아니라 ‘강하게 부인하다’라는 비유적 의미로도 많이 사용된다. 만약 번역자가 해당 관용구를 모른다면 그 축어적 의미만을 받아들여 자칫 오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관용적 신체언어를 번역할 때 첫 번째로 주의할 점은 바로 해당 표현이 관용구임을 알아차리는 것, 즉 축어적 의미가 아니라 관용적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파악하는 일이다.⁵⁾

일단 해당 표현이 관용구임을 파악하고 나면 그 관용구를 어떤 식으로 번

5) 관용구를 관용구로 인지하는 문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말 바꾸기: 번역학 입문』(곽은주 외 옮김, 2005)의 <3.2.2 관용구의 해석> 참조.

역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관용적 신체언어의 번역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1) 의미와 형태가 유사한 관용구 사용 (2)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한 관용구 사용 (3) 의미를 풀어 비관용구로 번역하기.

관용적 신체언어를 번역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양쪽에 의미와 형태가 유사한 관용구가 존재하는 경우일 것이다. 의미와 형태 모두가 유사한 영어와 한국어의 관용적 신체언어의 예를 살펴보자.

(22) ST: Don't lift a finger and spend a lazy holiday in Corfu.⁶⁾

TT: 코르푸 섬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빈둥거리며 휴가를 즐기십시오. (필자 번역)

위 예문은 여행 사이트에 실린 홍보문구로 코르푸 섬으로의 여행 상품을 선전하면서 힘들거나 번거로운 일정 없이 편안히 쉬는 휴양 상품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not lift a finger’라는 관용구를 사용하였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손가락을 까딱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지 않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관용적 의미로는 그만큼의 사소한 동작도 하지 않을 정도로 가만히 놀기만 함을 의미한다. 한국어에도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의미의 ‘손가락 하나 까딱 않다’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 관용구를 사용하여 원문의 관용구를 효과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처럼 영어와 한국어 간에 형태와 의미가 유사한 신체언어 관용구의 예로는 ‘put one’s heads together-머리를 맞대다’와 ‘close one’s eyes-눈 감아 주다’ 등이 있다.

두 언어 간에 의미와 형태 모두가 유사한 관용구가 존재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항상 그런 경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목표언어에 형태와 의미가 모두 유사한 관용구는 없지만 형태는 다르되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 관용구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23) ST: Although there are exceptions, many critically acclaimed films receive a cold shoulder in cinemas all over the world.

6) <http://www.lastminute.com/site/find/World/Europe/Greece/Ionian-Islands/Corfu/LMN-Holida-367838254.html>

TT: 예외도 있지만, 우수한 영화제에서 각광받은 거장의 작품들이 극장에서 찬밥 신세인 것을 세계 도처에서 발견한다.

(English JoongAng Ilbo 기사 2007. 3. 12)⁷⁾

영어 표현 ‘give someone a(the) cold shoulder’는 ‘~를 냉대하다, 무시하다’의 뜻으로서 중세시대에 반갑지 않은 나그네에게 차갑게 식은 양의 어깨고기를 식사로 제공한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박영수 2006:189). 위 기사문에서는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찬밥’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24) ST: I almost jumped out of my skin. It was like having someone leap out from behind a door and yell “Boo!” at you. (*The Outsiders* 27)

TT: 머리털이 다 곤두서는 줄 알았다. 누군가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뛰어나오면서 “에비!”라고 소리친다면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시라. (『아웃사이드』 53)

위의 밑줄 친 관용구 ‘jump out of one’s skin’은 몹시 놀라거나 충격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겠지만 위 번역문의 번역자는 ‘머리털이 다 곤두서다’라는 관용구를 선택하였다. ‘간 떨어지다’, ‘모퉁이 송연하다’ 등의 관용구도 비슷한 의미를 전달한다.

관용구의 형태의 유사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원천텍스트에 사용된 관용구는 목표언어에서도 관용구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용구의 뜻은 다른 어휘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관용구에는 대체 어휘에 없는 특정한 감정적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kick the bucket’과 ‘die’는 그 정의는 동일하지만 ‘die’라는 어휘에 비해 관용구 ‘kick the bucket’은 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됐다는 인상을 준다. 관용구 ‘hit the sack’과 일반 어휘 표현인 ‘go to bed’는 사전적 의미는 같지만 전자의 관용구가 한결 비격식적인 느낌을 준다(Cruse 37-39). 그러나 만약 목표언어에 비슷한 의미의 관용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언어의 관용구의 형태를 과감히 포기하고 그 의미를 풀어 다른 어휘로 번역해야 한다. 원천언어에서만 통용되는 관용구

7) <http://joongangdaily.joins.com/article/view.asp?aid=2875441>

를 그대로 직역하면 목표언어의 독자에게 아무런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왜곡된 의미를 전달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잡지 기사문에서 발췌한 다음 예를 확인해보자.

- (25) ST: There was only one thing for me to do. Good-bye, good luck,
break a leg. (*New York Magazine* 1993. 9. 6 p.45)
 TT: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였다. 안녕, 행운을 빌어, 잘 되길 바란다.
 (필자번역)

영어 표현 ‘break a leg’는 직역하면 ‘다리를 부러뜨리다’란 뜻이므로 악담처럼 들리지만 실은 상대방에게 행운을 빌어주는 표현이다. 연극 공연 전에 배우에게 하는 덕담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형태상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으로는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다’ 정도일 텐데, 이 표현은 영어의 ‘break a leg’와는 달리 ‘몹시 혼쭐을 내 준다’는 의미이므로 위 예문의 ‘break a leg’를 직역해버리면 마치 화자가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퍼붓는 것으로 의미가 왜곡될 것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해당 관용구의 의미에 중점을 두어 ‘잘 되길 바란다’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원천언어 관용구의 형태와 의미 모두, 혹은 형태가 달라도 의미가 비슷한 관용구를 찾기 힘들어 비 관용구 표현을 통해 그 의미를 전달해야 하는 신체언어 관용구의 예로는 ‘~와 결별하다’의 의미인 ‘give someone the elbow’ 등이 있다.

지금까지 관용적인 신체언어를 번역하는 세 가지 전략을 살펴보았다. 목표언어에 형태와 의미가 모두 유사한 관용구가 있으면 그 관용구를 이용하여 번역하고, 만약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유사한 관용구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다. 하지만 형태와 의미가 유사한 관용구를 찾기 힘들다면 그 관용구를 통해 전달하려는 핵심은 형태가 아니라 의미이므로 동일한 의미 전달을 위해 풀어 설명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물론 관용구는 일반 어휘와 달리 그 나름의 뉘앙스를 내포하기 때문에 원천언어의 관용구를 가능하면 목표언어로도 관용구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관용구들의 사용 맥락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역자는 관용구의 형태 및 의미뿐만 아니라 텍스트 종류나 문맥 등 사용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신체언어는 음성언어나 문자언어 못지않게 언어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무의도적, 본능적 신체언어는 인류 공통의 현상이지만 의도적 신체언어는 한 사회 내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약속으로써 후천적 학습을 통해 익혀 사용하며 그런 몸짓을 통해 특정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 때 몸짓의 ‘동작’과 ‘의미’의 결합 양상은 문화와 언어마다 다르고, 따라서 이러한 의도적 신체언어를 단순히 축어적으로 번역하면 의사소통의 절연과 잘못된 해독의 문제가 벌어지기도 한다. 비슷하게 관용적 신체언어 역시 언어와 문화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표면상 신체언어에 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표현의 축어적 의미, 즉 그 동작의 묘사가 목적이 아니라 비유적인 속뜻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역시 의사소통의 절연과 잘못된 해독의 문제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

본고에서는 묘사적 신체언어를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첫째, 어떤 신체언어가 원천언어에만 존재하는 경우, 둘째, 목표언어에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나 용법이 다른 신체언어가 존재하는 경우, 셋째, 목표언어에 형태와 의미가 비슷한 신체언어가 존재하지만 언어 유형이 다른 경우와 질문 형태에 따라 고갯짓의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번역 문제와 그 해결 전략들을 영한 번역 예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해당 동작을 축어적으로 번역하거나, 동작에 그 의미를 추가 설명하는 방법, 심지어는 동작 자체에 대한 표현은 생략하고 의미만 전달하는 방법 등 여러 전략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천텍스트의 신체언어 표현을 축어적으로 번역했을 때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면 반드시 번역자가 개입하여 어떤 식으로든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용적 신체언어에서는 의미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신체언어가 포함된 관용구는 해당 신체언어나 동작이 실제로 행해지지도 않고 또 그런 동작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용구에 담긴 속뜻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목표언어에 형태와 의미가 유사한 관용구가 있다면 그 관용구를 사용하여 번역하지만, 꼭 들어맞는 관용구가 없을 때는 형태는 다르되 의미가 유사한 관용구로 번역하거나 그 의미를 풀어 비관용구로 번역하여 원천텍

스트의 의미가 잘 통하도록 해야 한다.

신체언어는 언어활동에 큰 도움을 주면서도 한편으론 심각한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번역이 단순히 언어만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텍스트에 녹아 있는 원천문화를 목표텍스트의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화의 변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번역가의 문화 간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신체언어 표현은 단순한 동작의 묘사가 아니라 해당 문화에 밀접히 연관되어 그 나름의 특정 의미를 획득, 포함한 표현이므로 어떤 경우든 목표언어의 독자가 그 동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번역자의 각별한 주의와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참고문헌

- 김영순 (2000) 「한국인 손동작의 의미와 화용」, 『한국어의미학』 6: 27-47.
- 김영순, 임지룡 (2000) 「신체언어와 일상언어 표현의 의사소통적 상관성」, 『언어과학연구』 17: 59-78.
- (2002) 「몸짓 의사소통적 한국어 교수법 모형」, 『이중언어학』 20: 1-23.
- 곽은주 외 옮김 (2005) 『말 바꾸기』, 서울: 한국문화사. (Mona Baker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박영수 (2006) 『영어표현사전』, 서울: 살림.
- 성광수 (1999) 「이중언어교육과 비언어적 소통」, 『이중언어학』 16: 10-21.
- 이노미 (2009) 『손짓, 그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 서울: 바이북스.
- 이석주 (2000) 「신체언어와 의사전달」, 『국어교육』 101: 66-90.
- 이점숙 (1997) 「문화와 언어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점」, 『가톨릭상지전 문대학논문집』 27: 119-139.
- 장한업 (1999) 「신체언어와 외국어-불어 교육」, 『불어불문학연구』 39.1: 187-207.
- 조현용 (2003) 「비언어적 행위 관련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14: 279-297.

- 최광현 (1996) 「의사소통과 몸짓언어」, 『전북대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16: 91-108.
- Beekman, John and John Callow (1974) *Translating the Word of God*, MI: Zondervan.
- Birdwhistell, Ray (1970) *Kinesics and Context: Essays on Body Motion Communica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Cruse, David (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rwin, Charles (1872)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 in Man and Animals*, London: John Murray.
- Davis, Flora (1971) 'How to read body language', in Haig Brosmajian (ed.) *The Rhetoric of Nonverbal Communication: Readings*,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3-14.
- Ekman, Paul (1972) 'Universals and Cultural Differences in Facial Expression of Emotion' in James Col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1) 19,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7-283.
- Ekman, Paul et al (1987) 'Universals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judgments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712-717.
- Galisson, Robert (1976) *Dictionnaire de didactique des langues*, Paris: Hachette.
- (1990) *De la linguistique appliquée à la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Paris: Didier Erudition.
- LaBarre, Weston (1947) 'The Cultural Basis of Emotions and Gestures', *Journal of Personality* 16: 49-68.
- Mehrabian, Albert (1971) *Silent message*, CA: Wadsworth.
- Bonvillain, Nancy (2002)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NJ: Prentice Hall.
- Robins, Robert (1980)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Longman.

예문에 사용된 분석 텍스트 출처

*() 안의 숫자는 예문 번호임.

- (1) 'A Seven-Dollar Dream' 2003. 김입득 외. (주)현대영어사 고1 영어교과서.
- (4) ST: *Beyond Seduction*. 2002. Holly, E., NY: Jove.
TT: 『유혹을 넘어서』. 2009. 강성희 옮김. 마음미디어 e-book.
- (5) *Angel: Avatar*. 2001. Passarella, J. NY: Simon Pulse.
- (6) ST: *Soul Harvest*. 1999:200. LaHaye, T. and J. Jenkins. Wheaton, IL: Tyndale House Publishers.
TT: 『영혼추수』. 2007. 원영희·진실로 옮김. 서울: 홍성사.
- (7b) 「아담의 후예」, 『복덕방』, 2007:41. 이태준. 서울: 범우사.
- (8a) ST: *The Dante Club*. 2004. Pearl, M. Random House. Inc.
TT: 『단테클럽1』. 2006. 이미정 옮김. 서울: 황금가지.
- (9) ST: *The Five People You Meet In Heaven*. 2003. Albom, M. NY: Hyperion.
TT: 『에디의 천국』. 2004. 공경희 옮김. 서울: 세종서적.
- (10a) 『달란트 이야기』. 2006. 이종선. 서울: 토네이도.
- (11) ST: *Interred With Their Bones*. 2007. Carrell, J. NY: Penguin Group Inc.
TT: 『퍼스트 폴리오2』. 2009. 박현주 옮김. 서울: 시공사.
- (13) ST: *Harry Potter and the Prisoner of Azkaban*. 2001. Rowling, J. London: Scholastic.
TT: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1999. 김혜원 옮김. 서울: 문학수첩.
- (14) ST: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2001. Joyce, J. 서울: 신아사.
TT: 『젊은 예술가의 초상』. 2001. 이상욱 옮김. 서울: 민음사.
- (16), (18) ST: *Apollyon*. 2000. LaHaye, T. and J. Jenkins. Wheaton, IL: Tyndale House Publishers.
TT: 아폴리온. 2007. 원영희·이성열 옮김. 서울: 홍성사.
- (17) ST: *Assassins*. 1999. LaHaye, T. and J. Jenkins. Wheaton, IL: Tyndale House Publishers.
TT: 『암살단』. 2008. CR번역연구소 옮김. 서울: 홍성사.

(24) ST: *The Outsiders*. 1997. Hinton, S. Toronto: Puffin Books.

TT: 『아웃사이더』. 2007. 신연후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5) *New York Magazine*. 1993. 9. 6. NY: New York Media LLC.

[Abstract]

English-to-Korean Translation on Body Language

Chin, Silo
(Sejong University)

Body language is a huge part of human communication. Its role is as important as verbal language's one, and its relationship with culture is as strong as verbal language's. Therefore the same body language can mean very different things in different cultures. In other words, one culture set of acceptable body language or gesture may not be understood with the same meaning in a different culture. For example, in Korea to ask someone to come over, people usually raise a hand with palm facing outward and then bend and straighten it, but the same gesture is used to ask someone to "go" or to say "good-bye" in America.

Since similar misunderstandings often occur in translation, translators should sometimes manipulate the expressions including gestures so that target readers can understand the exact meaning of the body language and, as a result, the whole tex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mmon mistranslated cultural body languag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and offers some practical translation strategies, in order to help translators avoid the pitfall of 'non-sense' or 'distorted meaning' of body languages.

▶ Key Words: body language, cultural body language differences, translation

진 실 로

세종대 영문학과 강사

sunrise120@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학, 문학번역

논문투고일: 2010년 1월 29일

심사완료일: 2010년 3월 02일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15일